Comme des Garcons 컬렉션에 표현된 현대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

The Fashion Trend of Modern Naturalism in the Collection of Comme des Garcons

이지은* · 홍인숙 · 권수애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Ji Eun Lee* · In SooK Hong · Soo Ae Kweon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 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I studied the trends of naturalism reflected on the fashion trends in 2000s,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naturalism showed in modern fash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women's wear trend serviced by www.samsungdesign.net.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Comme des Garcons collection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modern society, the scientific and realistic concept of naturalism was being shifted to nature-friendly and actual concept which harmonized with nature conceived to be important in environments.

Second, the interests on well-being and LOHAS introduced the actual naturalism, and the naturalism became a prominent trend at turning times to 21th century.

Third, the concepts of naturalism showed in modern fashions could be categorized into ecology, primitive, retro and exotic trends.

Finally, the Comme des Garcons collections did not follow a passing fashion trend only, instead they formed unformalized natural silhouette and details in the view of new analysis and philosophy of themselves. The silhouette represented a natural sense in harmony with colors of simple materials.

Key Words : Naturalism, Well-Being, Fashion Trend, Comme des Garcons

Ⅰ. 서론

오늘날 패션은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을 내포한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면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쾌적함을 추구한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환경 친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내고 있다. 슬로비족, 보보스족, 웰빙족, 로하스족, 바이오니어스 족들이 이들 그룹에 해당되며, 80년대의 에콜로지 트렌드 이후에 최근 부상하는 자연주의(naturalism)는 격식보다는 기능성과 편안함,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흐름을 같이 한다.

사회 환경이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자연과 밀접해지려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자연주의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패션분야의 내추럴리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웰빙과 로하스를 화두에 둔 내추럴리즘 관련 연구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지속적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현대패션에서의 내추럴리즘 패션트렌드와 디자인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그 활용도가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내추럴리즘 경향에 대해 파악하고, 현대패션에 나타

* Corresponding author: Ji Eun Lee
Tel: 011-9829-7515
E-mail: aquara@naver.com

난 내추럴리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여 새로운 자연주의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내추럴리즘이 2000년 이후 패션 트렌드에 어떠한 경향으로 등장하여 패션에 반영되었는지를 내추럴리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Comme des Garcons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내추럴리즘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는 삼성디자인넷과 스타일닷컴, 포스트뷰닷컴을 통해 2001~2008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패션 트렌드를 연도별, 시즌별로 분석하고, Comme des Garcons의 컬렉션에서 내추럴리즘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였다. 내추럴리즘 경향의 의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연스러운 실루엣, 천연 소재 및 원시적인 자연재료의 사용, 에콜로지, 이국적, 원시적, 레트로 정서의 영향을 받은 자연문양과 색채, 수공예적인 디테일 등의 자연주의적 요소들을 내포한 의상들을 추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즉 내추럴리즘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각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자연주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연의 개념에 확고하게 근거를 둔 단일하고 명백한 예술관이 아니라 수시로 변모하면서 시대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구체적 과제를 지향하는, 특별한 현상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다(Arnold houser, 1999).

자연주의는 17세기 예술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자연의 정확한 모방을 주장하는 생각'을 '자연주의적'이라고 하였으며, 자연주의는 '자연을 양식화하거나 개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주의'로 정의되고 있다(김주희, 1999; 김희연, 김영인 2006). 즉 인간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에 근거를 둔 사실적인 묘사로, 객관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자연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김영인 외, 2006).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자연주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개성적인 시각으로 주관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주의가 변모해가면서 21세기에는 새로운 개념의 자연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연주의의 개념이 근대시대에 과학적, 사실적인 자연주의였던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현실적인 자연주의로 변화되었다. 과거 하나의 양식과 사상에 국한되었던 자연주의에서 현대의 자연주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따른 가족관, 결혼관, 직업관 등의 가치관 변화로 자연주의 지향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그룹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들 그룹의 종족 찾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관찰,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자연주의를 지향하며 등장한 그룹들에는 보보스족(정은숙, 김신우, 2002), 웰빙족(김경인, 2004; 김영한, 임희정, 2004), 슬로비족(삼성디자인넷, 2004; 조수현, 2006), 멘티족(삼성디자인넷, 2004), 로하스족(한국섬유신문, 2006; 삼성디자인넷, 2003, 2004), 바이오니어스족(패션비즈, 2007) 등이 있으며 새로운 종족(tribe) 들이 현재도 생성되고 있다.

현대 내추럴리즘은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른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에콜로지 경향의 한 양상으로 파악(김주희, 1999; 이경아, 1998)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여러 가지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하여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내추럴리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현대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와 디자인

1)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

2000년 이후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 분석은 삼성디자인넷의 여성복 트렌드 정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도하였다. 패션은 변화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도별, 시즌별로 제너널 인플루언스(general influence)를 먼저 살펴보고, 자연주의에 해당하는 테마와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테마가 등장한 시즌의 내추럴리즘 패션트렌드에 해당하는 색상, 소재, 스타일 특징을 S/S와 F/W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1, 2>.

<표 1, 2>의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년도의 시즌별 내추럴리즘적 요소와 내추럴리즘의 영향,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연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연주의 경향의 제너널 인플루언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거친(rough), 수공예(creative hand craft), 빈티지(vintage), 엑조틱(exotic), 트로피컬(tropical), 노스탤지어(native nostalgia), 치료(therapy of healing), 원시적인 재료(primary material), 웰빙(well-being), 오가닉(organic), 전통(heritage), 보헤미안(bohemian), 코쿤닝(cocooning), 리사이클(recycling), 원시의(primitive) 등이 내추럴리즘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1) 색상 트렌드

색상 경향은 2000년대 전반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페미닌 로맨틱의 맥시멀리즘(maximalism)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밝고 환한 느낌의 tinted color mood가 강조되며 밝고 다소 선명한 색조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내추럴 에스닉 감각을 위해 beige, brown, red 등의 warm mood가 강조되었고, greenish yellow에서 blue에 이르는 green과 blue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white, whitened pastel 계열과 pale, light, light grayish, soft, dull의 고명도, 저/중채도 색상이 지속되며 neutral 색상이 강조되었다. 2005, 6년을 기점으로 미니멀리즘(minimalism)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후반에는 grayish 컬러가 가미된 neutral 계열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 심리와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자연주의 콘셉트가 전반적으로 색상에 반영되며 안심, 평온, 풍요, 행복, 부드러움, 내추럴 등의 무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neutral 계열의 off white, skin neutral, 미세한 grayish 컬러가 가미된 cool neutral, ecru계열의 컬러 등이 매 시즌별 표현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유행색으로서 전 시즌에 걸쳐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지를 제공하는 대지와 그곳에서 수확되는 자연물의 색상에서 보여 지는 자연과 클래식한 전통적 느낌을 전해주는 natural earth color, orange, khaki brown, gold 터치가 가미된 다양한 베이지 컬러 계열로 클래식/에스닉/이국적 무드의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암석과 정글에서 온 green, 오션 컬러를 연상하게 하는 washed blue green, turquoise, lilac sachet, lime light 색상 등의 bright 색상 계열은 악센트 컬러로 이그조틱 무드의 활기와 리듬감을 부여하며 시즌의 표정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물의 색상을 응용한 컬러 전개는 원초적인 자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불러일으키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동일화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기품있는 삶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2) 소재 트렌드

일반적으로 자연주의의 소재 트렌드에서는 재질적인 면에서 주로 얇고 가볍고 부드러운 천연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천연감각을 내재한 테크니컬한 복합소재와 다양한 가공으로 촉각을 자극하는 재질의 활용은 테크놀로지의 세계가 제시하는 비인간적, 비물질적인 사물의 외관을 보다 인간적이고 정감어린 디자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신축성 있고 부드러운 천연소재는 내추럴과 테크노의 조화를 추구하며 적극 활용되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재전시회인 프리미에르 비죵(Premiere Vision)에서 2005 S/S 시즌의 주제어를 비타민으로 제시하며 가벼움과 투명함, 자연스러우며 밝고 건강한 색, 면과 마를 필두로 하는 천연소재의 증가 등 80년대 에콜로지 경향 이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자연주의의 또 다른 흐름을 소개하며(조수현, 2006) 이러한 유행을 선도하였다.

한편 2002 F/W, 2003년 S/S, F/W, 2007 F/W, 2008 F/W에는 자연적인 식물, 이끼, 돌, 나무, 흙, 털(fur)과 같은 자연물의 거칠고 투박한 감성과 원시적이면서 낡은 듯한, 헤진 듯한 느낌의 친숙함을 미학적 즐거움의 원천으로 여기며, 독특하고 생명력 있는 극적인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주의를 재조명하며 활용되었다.

그리고 2002 F/W, 2004 S/S, F/W, 2006 S/S에는 패턴을 겹치거나 완성된 패턴에 패치워크, 손뜨개, 자수, 꽃무늬 같은 장식을 믹스하는 등의 수공예를 통한 자연의 재해석으로 로맨틱한 네오 히피감각의 내추럴리즘을 표현하였다.

2000년대 중, 후반에 접어들면서 웰빙, 로하스의 영향으로 자연주의 소재 경향은 오가닉(organic)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책임의식이 있는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와 에콜로지 사이의 조화를 열망하는 새로운 윤리적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친환경 의식을 충족시키는 'Eco Tech'가 새로운 영역으로 재정립되면서 진화하는 에콜로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2008 프리미에르 비죵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선보였으며, 리사이클 나일론을 처음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리사이클 소재를 점차 늘려나갈 움직임을 보였다. 쿨소재, 은이온, 나노섬유, 초극세사 등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소재와 글로벌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대나무/숯/녹차/고추/코코넛/비타민/마/죽/콩 섬유에 이르기까지 자연성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소재, 무독성 천연소재/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소재/장인들의 수작업과 같은 재료와 공정의 오가닉 소재 등 항균, 방취, 자외선 차단, 환경 친화적 요소에 이르는 다양한 새로운 기능성을 살린 신소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07).

미국의 OTA(Organic Trade Association)와 오가닉 제품 생산업자는 향후 5년간 오가닉 섬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44%, 의류의 경우는 연간 성장률이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삼성디자인넷, 2003). 이와 같이 오가닉 관련기관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거의 모든 패션 트렌드는 오가닉 스타일을 21세기에 풀어야 할 새로운 화두로 여기고 있다.

(3) 스타일 트렌드

<표 1, 2>의 스타일 테마의 트렌드 정보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내추럴리즘 경향의 스타일 테마로 에스닉(ethnic), 이국적(exotic), 포클로어(folkore), 레트로(retro), 히피(hippie), 그런지(grunge), 빈티지(vintage), 프리미티브(primitive), 에콜로지(ecology), 이지 & 내추럴(easy & natural), 캐주얼(casual)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느낌의 릴렉스함을 중시하며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여유를 주는 실루엣으로 민속풍, 자연회귀의 레트로풍, 70년대의 에스닉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네오 히피 스타일이 새롭게 다시 부각되었다(김희연, 2004).

글로벌화에 의한 문화의 보편화는 서구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아시아, 동아시아 등의 문화가 현대패션에 융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 소외되었던 문화는 글로벌 시대인 현대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고립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여러 나라의 이국적 민속풍이 혼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임영자, 권진, 2002).

천연소재로 여유를 주며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느낌의 자연주의 이지 캐주얼 테마는 2003 S/S, 2005년 S/S에 스타일 테마로 등장하였다. 한편 2002년 F/W에는 일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속풍이 트렌드에서 등장하였고, 2003년 F/W에는 중국과 중동의 2005년 F/W에는 중동과 페루의 민속풍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 S/S에는 중국풍, 아프리카풍, 2007년 S/S에는 라틴아메리카풍이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흐름과 자연으로의 회귀본능에 의하여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 지역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에 향수를 느끼며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풍의 자연주의가 2000년대 대표적 스타일로 등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국적, 포클로어 이미지도 넓게는 에스닉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이봉덕, 2001)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옛 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복고풍의 레트로 룩이 2004년 F/W, 2005년 S/S, F/W, 2008년 S/S에 등장하였다. 내추럴리즘 복식에서 표현되는 복고풍은 과거 고전적 스타일, 전원적 스타일, 히피룩의 재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내추럴리즘

(1) 연도별 내추럴리즘 패션 변화

복식에서의 자연주의는 특정한 복식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추럴리즘 스타일, 내추럴 실루엣, 내추럴리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들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소재와 자연의 색이나 천연염료의 색을 사용하고 동·식물 등의 자연 형상을 모티브로 하며 인간 본래의 체형을 변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의미하는 복식이 자연주의 복식이라 하겠다(김희연, 2004). 즉 인간 본래 체형을 거슬리지 않고 변형이나 과장을 피한 실루엣의 표현으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하는 패션을 말한다.

의복에 실루엣, 색상, 소재와 문양의 디자인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자연주의 콘셉트를 내포하고 있으면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정재윤, 2005).

현대의 내추럴리즘 패션은 1960, ‘70년대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히피문화의 영향을 받아 확산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런 느낌의 손뜨개, 패치워크, 자수, 자유와 반전의 상징인 꽃무늬, 액세서리와 같은 장식기법과 천연소재의 선호, 레이어드 연출은 ‘70년대 자연주의 복식의 중요한 표현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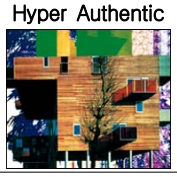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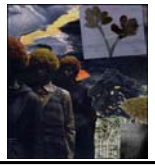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민속풍이 유행에 등장하였으며, 자연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고조되면서 패션 테마로 에콜로지가 등장하였다. 꽃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자연물의 모티브, 깨끗한 산림이나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녹색과 파란색, 천연소재의 사용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실루엣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내추럴 스타일이 제시되었으며 아메리칸 이지스타일이 등장하였다(금기숙 외, 2002).

1990년대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적 요소의 퓨전화 영향으로 내추럴리즘 복식도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재구성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세련된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내추럴리즘 성향과 복고풍 분위기는 에콜로지 룩과 연결되며 에스닉, 그런지, 프리미티브, 네오 히피, 네오 클래식 등이 1990년대의 두드러진 세계 패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정홍숙, 2006).

<표 1> 연도별 S/S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 분석

년도	General Influence		Color	Fabric	Style
	Theme	Key word			
02	Nature Aesthetics	return to reality, creative hand craft, recycled vintage tropical esprit	skin tones, earth tones + yellow, salmon, blue infinity, sour green	classic base, linen look, cultural mix, retro-chic geo, ethno fusion	glocal-eco safari chic, eco couture, primitive elegance, ethnic modern mood
03	Memory & Nostalgia	image of rural living, new naturals, neo traditional, native nostalgia,	cool white, fluo world, supple feminism, urban earth, sun-faded,	fresh innocence, exotic vintage, fresh cotton, vintage botenical	breeze in the desert '40 masculine chic, easy & relax mood
04	Heritage of original culture	original ethnology, reinterpretation of nature, exotic & tropical	grayish color range, burnt earth, antic bronze,	crochet knit, organic geometry pattern, exotic flower, ethnic stripe	dream for the unknown exotic sensuality, ethnic mix,
05	Serenity & Pleasure	life of human& philosophy, therapy of healing, primary material search for natural form,	poetic transparency, pastel freshness, sophisticated basics, romantic banality	natural mix, natural relaxation, botanical garden, jungle primitive	being together, natural sporty 감각 shabby chic, primitive culture exotic mood
06	New Alternative	neo-hippie taste, recycled design, hand touch, cultural exchange sensory symbol	earth color, warm ocher, mid/dark orange, brown, jungle green, sand beige/ yellow/military	rustic linnen check/stripe, africa graphic pattern	africa travel safari chic, stylish traveller,
07	Nature	well-being organic notion, gardening, artwork, fresh object	air, milky white, fresh green, ebony	manifestly vegetal, natural resources, synthesized organic	ecological romantic, blooming shape, →country mood retro ratin tour safari tour
08	Eco Appeal	camping out, urban nature, sun light, new nostalgia	skin neutral, sunny yellow, green to new aqua	discreet surface cotton, natural touch synthetic, eco treatment cotton	fresh sent of nostalgia 70's hippie taste compound culture modernized africa, brilliant ethnic

<표 2> 연도별 F/W 내추럴리즘 패션 트렌드 분석

년도	General Influence		Color	Fabric	Style
	Theme	Key word			
01	Hyper Authentic 	natural & techno fusion, The natural Alliance, Originary nature	goldish yellow & green, emotion faded color misty	artistic flower, nocturnal bloom, natural protective	authentic heritage, neo primitive, rustic trad, eco-luxe, rustic & modern ethnic
02	Authentic & Heroic	viral marketing, the military & survival trend, re-foundation of nature& heritage	fragile nuance, green admirer, harmonic memory	wild nature, organic & deco: hand-tough / hand made, organic inspiration	frontier girl soft military, decorative country, wild nature, →urban military, neutral & chic
03	Illusive & Fantastic Legend의 5번	enchanting nature	neutrals de luxe, cool soft, surprising bright	retro classic, culture decoration, neo floral, organic world	age of calm wild & primitive, ecletic folklore →rustic ethnic
04	Profuse Heritage	neo-bohemian, imaginary nature, narrative decoration	vintage masterpiece, futuristic clean, mineral reflection	neo camouflage, country flower, hand-craft	brit life, review the tradition, colorful country, fancy & folklore image mix
05	Emotional Innovation	neutralized design, tactile sense, protective cocooning	vintage mania, utopian green, magic blue	romantic vintage, opulence flower, originality expression	sober british, british masculine, trench revolution, return of classic, countryside vintage,
06	Elegance From Elsewhere	craftmanship of antique, nomadic luxury, raw & wild texture of animal,	blue+beige, neutral range,	basic wool+fluid jersey, compact fabric + silky satin, reviewed fur	mystic avant-garde new ecological, humanist
07	Natural Legend	mutation, primative nature, recycling	winter white, skin pink, feminine blown, chinese blue	knit parade, metalics, fur, leather return	natural legend, rustic knit, cocooning layer, →chic함이 묻어나는 캐주얼룩
08	Profound Nature 	mineral surface, raw natural edge, organic combination	greenish, bluish grey, sunny & tone yellowish & bluish green	crafty texture, warm & cocooning, vintage check, retro geometric	profound nature neo grunge →테크놀로지베이스가 숨겨진 인공적인 모든 것을 배재한 자연친화적인 접근

2000년 이후는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자는 60년대 히피풍의 스타일, 페전트 룩의 보헤미안 풍 로맨틱 스타일 등으로 내추럴리즘 복식이 등장하였고, 에스닉과 같은 다른 양식들과 혼재되어 믹스된 내추럴리즘 복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환경, 인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오가닉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사실적인 자연주의 개념이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나는 자연주의적 성향은 현대적 감각과 융합되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수공예를 통한 자연의 재해석, 자연적인 형태와 질감의 소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내추럴리즘으로 변모되고 있다(김희연, 김영인, 2006). 오가닉의 영향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재활용되거나 재생된 빈티지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유명 디자이너들도 옷과 액세서리에 빈티지 룩을 선보이고 있다.

(2) 2000년대 이후 내추럴리즘 패션

2000년 이후 패션 트렌드에서 제안한 내추럴리즘 스타일 테마와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현대 패션에 등장한 내추럴리즘 개념을 에콜로지, 원시주의, 레트로, 이국적 경향으로 대분류하고, 원시주의의 하위개념으로 그런지를, 레트로의 하위개념으로 포클로어/빈티지/ 히피를, 이국적 이미지의 하위개념으로 트로피컬/에스닉으로 소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콜로지(ecology)는 '생태학'이라는 뜻으로,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 지향적 룩의 총칭이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에콜로지 이미지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조화되고자 하는 일원론적인 동양사상의 영향으로 '자연적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 '자연과 조화된 이미지', '재활용적 이미지', '재순환적 이미지'로 분류(한소원, 1995)하기도 하고, 자연 에콜로지와 인간 에콜로지로 분류(천소영, 1995)하기도 하였다. '80년대 말에 등장한 자연 에콜로지는 자연으로의 복귀 현상을 나타내며, '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인간 에콜로지는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02 S/S에 Issey Miyake<그림 1>는 담쟁이 넝쿨을 휘감아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에콜로지 스타일을 표현하였고, '03~'05년 S/S에 Comme des Garçons<그림 2>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은 린넨과 면 소재를 사용하여 구깃구깃하고 까칠까칠한 표면감이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원시주의(primitivism)의 원시적(primitive)이란 말은 라틴어의 'Primus(제일의)'에서 유래하였고, 오늘날에 와서 '미개', '단순', '소박', '미분화', '초보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역사적 의미에서 원시적이라는 개념은 '태고' 혹은 '개화(開化)에 대한 미개(未開)'를 뜻한다(이경희, 2003). 18세기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에 의해 '고귀한 미개인(Noble Savage)', 즉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을 우월하게 여기는 감상적인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원시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성 회복의 측면에 그 원인이 있다(김소영, 2007). 원시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 가치 기준에서 보는 입장(두산백과사전, EnCyber)으로 문명화된 시대의 세련미나 정교함보다는 원시시대의 순박함과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태도를 말한다. 생명력에 대한 갈망으로 원시로부터 영감과 모티브를 얻어 인간 본성이 지닌 요소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원시적 자연주의는 아프리카와 같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지역의 영향을 받아 나체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단조로운 형태가 특징이며, 투박하고 거칠고 가공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천연 재료의 사용, 자연요소적인 문양의 프린트나 액세서리 및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시성을 표현하고 있다.

원시주의의 하위 개념인 그런지 룩은 1980년대 말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세련된 토탈 룩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스타일로 오물, 쓰레기, 폐품 등을 의미하는 '그런지(grungy)'에서 유래하였다. 1960년대 히피의 초라하고 남루한 분위기를 즐기며 이질적 소재와 내추럴한 감각의 믹스 매치를 통하여 창의적인 레이어링(layering)을 제시하는 등 하류층의 복식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소재, 재활용 소재, 데님의 브리콜라주 등 에콜로지 스타일이 지배적이다(현지연, 2005).

'02, '03년 F/W에 Sportmax, Alexander McQueen 등이 원시적인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고, '02년 F/W에 John Galliano<그림 3>, Christian Dior<그림 4>가 아프리카풍의 원시주의 스타일을 소개하였다. John Galliano는 표범가죽에 깃털이 장식된 모자를 이용해 아프리카의 원시적 야수성을 감각있게 표현하였다. '06년 S/S에 Marc Jacobs<그림 5>는 낡은 느낌의 체크 패턴 소재와 아이템 간의 믹스 매치로 풍성하고 편안한 그런지룩을 선보였다.

레트로(retro)는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로서 노스탤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회고적, 옛 것을 그리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패션, 옛날의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올드 패션의 리바이벌을 말한다.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양식 즉, 과거양식을 '패러디' 과정을 거쳐서 모방이 아닌 새로운 표현성을 가진 현재의 유행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인간 본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에서 복합적 스타일의 레트로가 출현하였다(천지영,

<표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내추럴리즘 경향

에콜로지	원시주의	레트로	이국적
<그림 1> '03 S/S Issey Miyake <그림 2> '03 S/S Comme des Garcons	<그림 3> '02 F/W John Galliano <그림 4> '02 F/W Christian Dior <그림 5> '06 F/W Marc Jacobs(그런지풍)	<그림 6> '02 F/W 안나수이(포클로어풍) <그림 7> '02 F/W Trend Les Copains(빈티지풍) <그림 8> '03 S/S Y & Kei(빈티지풍) <그림 9> '05 S/S Anna Sui(히피풍)	<그림 10> '05 S/S D & G(트로피컬풍) <그림 11> '02 F/W Bally(에스닉풍) <그림 12> '02 S/S Luella(에스닉풍)

2000). 최근의 레트로 경향은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의 부각으로 자연주의 성향에서 비롯된 에스닉, 히피룩, 페전트룩, 빈티지룩, 인간 본연의 낭만주의적 감성에서 기인한 로맨틱 스타일이 세계 패션 흐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레트로의 하위 개념인 포클로어(folklore)는 비교적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서의 민속복으로 인종을 초월한 지역사회의 습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도시문화보다는 농어촌문화, 상류계층보다는 하층 서민의 생활문화 속에서 전승된 복장으로, 도시와 농어촌, 상류사회와 하층사회와의 대립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포클로어 패션에는 장식적인 전원풍의 페전트(peasant) 스타일, 유럽 서민 민속 스타일, 올드 컨트리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등이 있다(이미연, 2007). 그리고 빈티지(vintage)는 '수확기의 포도' 또는 '포도주 숙성' 등을 의미하는데 빈티지룩이란 숙성된 포도주처럼 오래되어 깊은 맛과 편안한 느낌을 나타내는 패션을 말한다(권수애 외, 2005). 빈티지 패션은 과거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현대 패션에 이용하는 재활용 패션과 과거 특정 시대의 스타일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재생패션 또는 재현패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활용 패션은 18세기 상류사회의 옷을 선망하던 일반인들이 벼룩시장에 내놓은 고급스런 상류층의 옷을 멋스럽게 코디하여 입으면서 시작되었다. 벼룩시장이 발달한 유럽, 일본 등지에서 자리 잡은 재활용 패션은 1990년대 들어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색이 바랜 구겨진 옷들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김혜경, 2007).

또 다른 대표적 하위개념인 히피(hippie)는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지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히피룩의 근원은 보헤미아니즘을 추구하는 비트세대들이 실존주의적 가치와 허무주의를 기초로 한 행동에 대하여 일체의 제약과 전통을 거부하면서 생성되었다(김혜경, 2007). '60년대부터 '70년대 유행했던 히피룩은 정치적 색채를 띤 사회운동적인 패션으로 저항과 반전, 평화, 사이키델릭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반 패션적인 스타일이었다. 반면 '90년대 등장한 네오 히피 룩은 사회적 이슈나 정신적 배경을 내포하지 않은 하나의 개인취향으로 세계적인 주류 패션으로 부상하였으며 소재가 고급화되면서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으로 재현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김후란, 은영자, 2003).

'02년 F/W에 Anna Sui<그림 6>는 자수 장식의 띠를 허리에 두르고 구슬장식 목걸이를 착용하여 티롤지방의 민속의상을 재현한 것 같은 전원풍의 자연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01~'02년 F/W에 D & G, Trend Les Copains<그림 7>, '03~'04년에 DKNY, Y & Kei<그림 8>는 빈티지 감각의 자연주의를 소개하였다. Trend Les

Copains은 톤다운 된 색상의 핸드스티치와 패치워크 조각으로 내추럴을 표현하였고, Y & Kei는 그라데이션 효과와 겉으로 드러나는 솔기 선, 수공예적인 끈 등으로 오래된 듯한 깊은 맛과 편안한 느낌의 빈티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05년 S/S에 Anna Sui<그림 9>는 인디언 풍의 깃털 장식 목걸이와 술 장식이 달린 블라우스, 꽃무늬 스커트, 롱 부츠 연출로 로맨틱한 네오 히피룩을 표현하였다.

이국적(exotic) 스타일은 '이국풍의', '이국정서'라는 뜻으로 외국의 풍속이 반영된 의상이거나 이국적인 무드가 살아 있거나 그런 경향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과거에 대한 환상과 향수로서 민속 의상의 특색과 스타일, 장식 등을 선호하는 노스탤직에서 비롯된 서양 시각으로부터의 이국정서를 말한다.

하위개념의 트로피컬(tropical)은 '열대의', '열대 지방의' 또는 '열렬하고 정열적'이란 뜻으로 트로피컬 룩은 열대 지방의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을 의미한다. 열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밝고 대담하며 강렬한 색채 사용과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이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타일이다. 문양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의상의 실루엣이나 패턴은 단순한 편이고, 여름 리조트웨어 디자인으로 가장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 디자이너는 돌체 앤 가바나, 지아니 베르사체, 겐조 등이 있다(김혜경, 2007).

이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하위개념으로서 에스닉(ethnic)은 사전적 의미로 '민족의, 이도교의, 이방인의' 라는 뜻을 가지며, 미국이나 서부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제 3세계의 민족적인 독특한 색, 장식, 무늬 등을 의미한다. 즉 에스닉 룩은 서양 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에 대한 향수라 할 수 있다(변미연, 이지은, 이인성, 2007). 이국 취향의 에스닉 룩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인간 정신의 향수로 자연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표현된 복식으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평면적이고 비구축적인 형태, 자유로운 착장방식과 토속성이 강한 고유의 문양과 색채로 표현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타 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은영, 2001).

'01년 S/S에 Gucci, '04년 S/S에 Celine, '05년 S/S에 D & G<그림 10> 등이 열대 식물과 꽃문양을 이용한 무무 드레스 스타일과 사롱 스커트 등의 트로피컬 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02년 F/W에는 Bally<그림 11>가 '03년, '06년 S/S에는 Bluemarine, Jean Paul Gaultier 등이 일본과 중국의 오리엔탈 영향을 받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비구축적인 형태의 자유로운 착장 스타일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02년 S/S Luella<그림 12>는 풍성한 실루엣의 페루 직물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무늬와 기법 등을 응용한 소재로 이국적 취향의 자연주의를 표현하였다.

Ⅲ. Comme des Garcons 컬렉션의 내추럴리즘 패션 분석

1.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의 작품경향과 미적 특성

콤므 데 가르송의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1942년 도쿄에서 태어나 콤므 데 가르송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일본 디자이너이다. 1967년 그녀는 일본판 마리 끌레르의 편집장인 고자슈의 도움으로 스타일리스트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상디자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69년에 부인복 제조판매를 시작하여 1973년에 'Comme des Garcons'이란 브랜드를 설립하였는데 'Comme des Garcons'은 '사내아이 같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뜻과는 상관없이 어감이 좋아서 브랜드명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1년 외국 디자이너로써는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초대받아 세계 패션계에 일본의 미의식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언론 및 패션계에서는 그녀를 낯선 디자인의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평가하고 있다(이건희, 2001; 양취경, 이건희, 2002).

파리에 온 그녀의 '콤므 데 가르송 (남자처럼)'은 여성의 실루엣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면서 파리에 큰 충격을 주었다. 패션 평론가들이 '히로시마 시크'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컬렉션에서 그녀는 두 가지 시도를 하였다. 하나는 당시까지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검정색을 색의 왕좌에 올려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구멍이 나고 뻣뻣한 울을 형태를 잡지 않고 사용하여 실루엣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 후에 가와쿠보는 자신을 상징하는 상복 팔레트와 결별하였지만 여전히 성과 신체에 대해 재해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찢어지고 구겨진 의복, 몸에 걸쳐진 검정 옷들…. 그녀의 컬렉션은 남녀 구별이 없고 도발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육체, 여성성, 의상 등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식 엘레강스와는 전혀 다른, 옷에서 발견 할 수 있는 해체주의와 조형성을 심미안적인 의상으로 재해석한 레이 가와쿠보의 옷들은, 당시 서양의 전통적 의복 기준인, '신체에 맞아야 된

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서, 프랑스 패션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http://mybox.happycampus.com/backjaehee/737548).

레이 가와쿠보는 불규칙성, 비대칭 단순성을 이상화시키는 미학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녀의 작품은 직조공예의 전통, 새로운 소재와 커팅기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파괴 패션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솔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름에 연연해하지 않는 독특함과 인습과 전통의 틀을 부수는 실험정신에 도전하여 '의복은 신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관념을 해체시키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의복을 제작하였다. 그녀의 해체적 접근 방식으로 무대에 올려 진 작품들은 종래의 개념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삼성디자인넷).

2. Comme des Garcons 컬렉션의 내추럴리즘 패션 분석

2000년 이후 꼼므 데 가르송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내추럴리즘 경향은 삼성디자인넷과 스타일닷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표 4>는 앞서 현대패션의 내추럴리즘 경향에서 도출한 에콜로지, 원시주의, 레트로, 이국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연도별 꼼므 데 가르송의 컬렉션을 분류하고, 실루엣, 색상, 소재/문양, 디테일 및 액세서리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내추럴리즘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표 1, 2>와 <표 4>를 비교하여 삼성디자인넷에서 트렌드 경향과 내추럴리즘 경향으로 선정된 해당 시즌의 꼼므 데 가르송 컬렉션에서의 트렌드 반영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꼼므 데 가르송의 컬렉션에서 천연 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 지향적 룩의 에콜로지 경향이 두드러진 해는 2002년 S/S와 2003년 2005년 F/W이다. 이 시즌 꼼므 데 가르송은 skin neutral tone과 cream ivory, beige, black, white 색상의 마와 면 소재를 사용하여 내추럴 감각 그대로의 느낌을 튜블러 라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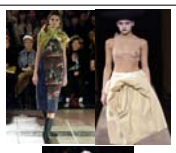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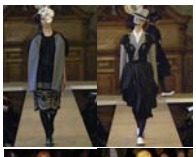
투박하고 거칠고 가공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천연 재료의 사용, 자연요소적인 문양의 프린트 및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시성을 표현하는 원시주의는 2003년 F/W, 2004년, 2006년 S/S 컬렉션에서 볼 수 있다. 매듭으로 내추럴하게 마무리한 디테일, 원단을 두른 듯 가벼운 피트 감각의 실루엣과 밀리터리 프린트 사용, 신체의 노출 등에서 순박함과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엿볼 수 있다<그림 16, 17, 18>.

레트로는 과거양식을 '패러디' 과정을 거쳐서 모방이 아닌 새로운 표현성을 가진 현재의 유행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콤므 데 가르송 컬렉션에서의 자연주의 경향의 레트로는 2006년 F/W, 2008년 S/S에 등장하였는데 가와쿠보 다운 레트로 스타일의 재해석에 의한 소재사용과 스타일의 믹스 매치가 돋보였다. 2006년 F/W 시즌에는 빅토리안 시대의 여성들 옷에서 영감을 얻은 바로크풍의 쟈카드와 부드럽게 흐르는 모직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복과 남성복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슈트감각의 스타일 믹스 매치가 흥미로웠다<그림 19, 20>. 그리고 2008년 S/S에는 어릿광대와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문양과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색상의 패턴끼리의 패치워크나 패턴믹스의 레이어드를 통하여 그런지풍, 히피풍의 내추럴리즘을 소개하였다<그림 21, 22>.

이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위개념으로서 에스닉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제 3 세계의 민족적인 독특한 색, 장식, 무늬 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콤므 데 가르송은 2006년에 영국 국기나 타탄체크를 사용하여 영국풍의 이국적 이미지를 소개하였고, 2007년 S/S에는 일본 국기를 모티브로 일본풍의 자연주의를 소개하였다. 2006년 S/S 컬렉션에서는 평면패턴을 제작하지 않고 드레이핑 기법만으로 영국 국기가 새겨진 소재, 타탄체크/꽃무늬 소재 등을 이용하여 어깨라인과 힙에 나선형으로 자연스럽게 두르고 스커트 옆에 루쉬 장식을 하여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표현하였다<그림 23, 24>. 2007년 S/S에는 일본의 국기와 사상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을 활용하여 해체주의적인 동양적 감성을 표현한 심플한 자연주의 의상들을 선보였다<그림 25, 26>.

콤므 데 가르송 컬렉션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 마무리되는 실루엣이 내추럴리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컬렉션에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도를 삼성디자인넷의 트렌드 경향과 비교한 결과 2002년, 2008년 S/S와 2003년, 2005년, 2006년 F/W에 트렌드 경향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인위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를 형성하는 실루엣은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콤므 데 가르송다운 자연주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유행을 추종하기보다는 매 시즌 콤므 데 가르송다운 새로운 해석과 철학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표 4> 콤므 데 가르송 컬렉션의 내추럴리즘 패션 조형적 특성 분석

	대표사진	해당 시즌의 삼성트렌드 경향 분석	실루엣	색상	소재/문양	디테일 및 액세서리
에콜로지	(그림 13) '02 S/S (그림 14) '03 F/W (그림 15) '05 F/W	'02 S/S ethnic modern mood '03 F/W ecletic folklore →rustic ethnic, '05 F/W romantic vintage	tubular line wrapped in a flaglike cloak (그림 14)	cream, ivory, beige skin tones, white	hand-tough/ hand made, crinkle cotton, ethnic stripe (그림 13, 14), antique lace veil, amazing patchworks of fan pleating, tulle, satin, and daisy chains of pure white lace (그림 15)	garlands of paper flowers, tinsel, and chains (그림 15)
원시주의	 (그림 16) '03 F/W (그림 17) '04 S/S (그림 18) '06 S/S	'03 F/W ecletic folklore →rustic ethnic, '04 S/S exotic sensuality, ethnic mix '06 S/S africa, brilliant ethnic	bunchy forms apart from the stocking tops used to veil the breasts from complete nudity(그림 17), creating whorls of tartan bunched around shoulder lines of jackets, wrappings of tulle that read as bulbous approximations of boleros, and bunchy skirts and ruched at the sides (그림 18)	jungle green, sand beige /yellow/military olive, skin neutral	rustic linnen, linen blended, natural touch synthetic, Union Jack-printed underwear and punkish tartans, neo floral (그림 18),	horned cloth headdresses (그림 17), ringletted girls in crowns (그림 18),
레트로	 (그림 19, 20) '06 F/W (그림 21, 22) '08 S/S	'06 F/W new ecological, '08 S/S 70's hippie taste	layered look masculinity and femininity, stylistic interest in suiting, (그림 19, 20), bewildering mash-up of layers: coats printed with African hairstyle ads/patchwork pant/synthetic ruffle-edged drink coasters (그림 21), tied-on fabric slings by developing the bunchy forms (그림 22)	blue ~ beige, grey, black brown, vivid color mix	basic wool+fluid jersey, heavy drape compact fabric + silky satin, linen blended, natural touch synthetic, baroque Jacquard elements culled from Victorian women's clothing (그림 19, 20), printed with African hairstyle ads (그림 21)	fusions of menswear and frilled silk and baroque Jacquard elements, masked woman in a fedora (그림 19, 20), pattern mix & match (그림 21, 22), dippy skirts with knotted rags tied to the hems (그림 22)
이국적	(그림 23, 24) '06 S/S (그림 25, 26) '07 S/S	'06 S/S africa travel '07 S/S flower, blooming shape, →country mood retro ratin tour	bunchy forms, layered look whorls of tartan bunched around shoulder lines/ bunchy skirts, swagged and ruched at the sides (그림 23, 24), simplicity nature, beauty, high-belted deconstructed jackets (그림 25, 26)	milky white, gray, black, red	pattern mix & match, patchwork (그림 23, 24), cotton, sheer mesh, delicate overlayers of organza, plastic (그림 25, 26)	ringletted girls in crowns (그림 23, 24), a giant red spot, the symbol of the Japanese flag and ethos (그림 25, 26)

Ⅳ. 결론

자연주의는 수시로 변모하면서 시대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구체적 과제를 지향하는, 특별한 현상에 초점을 두는 해석으로 17세기 예술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개성적인 시각으로 주관적 형상화를 이루었으며, 21세기에는 새로운 개념의 자연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웰빙이란 문화적 코드는 패션에서 자연주의가 부각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복식에서의 자연주의는 특정한 복식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추럴리즘 스타일, 내추럴 실루엣, 내추럴리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자연주의 경향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 디자인 특성을 콤므 데 가르송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과학적, 사실적인 자연주의의 개념이 현대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현실적인 자연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서로 다른 양식이 혼재되어 믹스된 자연주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가닉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사실적인 자연주의 개념이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현실적인 자연주의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관심은 자연주의의 본격적인 도래를 이끌었으며, 자연주의는 현대 가장 지배적인 트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셋째, 현대 패션에 등장한 자연주의 개념을 에콜로지, 원시주의, 레트로, 이국적 경향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이국풍 에스닉 스타일의 자연주의가 다문화적인 양상으로 트렌드 선봉에서 주도하였다.

넷째, 2000년 이후의 콤므 데 가르송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에콜로지 경향의 자연주의는 '02년 S/S와 '03, '05년 F/W에 원시주의 경향은 '03년 F/W와 '04, '06년 S/S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레트로 경향은 '06 F/W와 '08 S/S에 가와쿠보 다운 소재와 스타일의 믹스 & 매치로 등장하였고, 이국적 경향은 '06, '07년 S/S에 영국과 일본의 국기를 모티브로 소재와 실루엣에 에스닉 감성을 담은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콤므 데 가르송 컬렉션에서의 자연주의는 단순히 유행을 추종하기보다 콤므 데 가르송다운 새로운 해석과 철학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내추럴 실루엣과 디테일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심플한 소재에 컬러감이 어우러져 자연주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사로 웰빙과 로하스를 화두에 둔 웰빙 자연주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내추럴리즘, 웰빙, 패션 트렌드, 콤므 데 가르송

참 고 문 헌

권수애, 이은경, 최종명 (2005), 현대사회와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김경인 (2004), 최근 니트웨어 패션에 나타난 '웰빙'의 영향 -2000년 이후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 111-122.

김소영 (2007), 로하스를 접목한 아프리카 이미지의 직물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김영인 외 (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Look : 자연.몸.성.음악.취향.오리엔탈.모방.시간.미래, 서울, 교문사.

김영한, 임희정 (2004), 웰빙마케팅, 서울, 다산북스.

김주희 (1999), 내추럴리즘(Naturalism)적 표현에 의한 패션 디스플레이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김후란, 은영자(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Retro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2), pp. 293-319.

김희연 (2004),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연, 김영인(2006),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7), pp. 31-41.

변미연, 이지은, 이인성(2007), 안나 수이 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1), pp. 127-136.

양취경, 이건희(2002), Comme des Garc¸ons 작품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Vol.16, pp. 23-50.

이건희 (2001),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 : Rei Kawakubo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2003), 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양식과 의미 분석 : 2001년부터 2003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연 (2007), 패션 트렌드 정보 키워드에 따른 국내 이국적 이미지 상품 분석 - 2001～2006년 여성복을 중심으로 -, 복식문화연구, 15(4), pp. 634-648.
이봉덕 (2001), 20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아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90년대 현대 복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2001),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임영자, 권진 (2002),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2(5), 통권 70호, pp. 79-89.
정은숙, 김신우 (2002), 히피패션이 보보스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2), pp. 45-57.
정재윤 (2005), 내추럴리즘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재연구 : 아트웨어(art-to-wear)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홍숙 (2006),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조수현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웰빙 트렌드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비즈니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소영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지영 (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소원 (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 1990 - 1995년의 복식유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지연 (2005), 현대패션의 빈곤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nold houser, 백낙청, 염무웅 역(199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서울, 창작과 비평사.
두산백과사전, EnCyber.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스타일닷컴, http://www.style.com
패션비즈, http://www.fashionbiz.com
퍼스트뷰닷컴, http://www.firstview.com
한국섬유신문, http://www.ktnewa.com
http://mybox.happycampus.com/backjaehee/737548

(2008. 5. 17 접수; 2008. 8. 7 채택)